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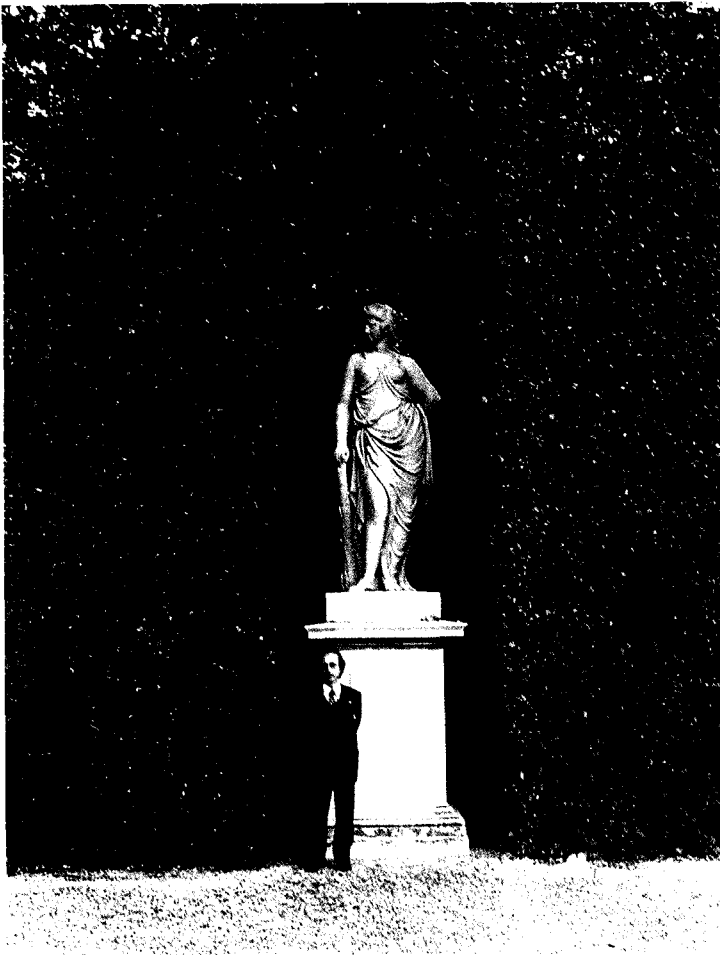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산책 (Ⅱ X)

— 느 립 나 무 —



1. 신화의 느릅나무

복구신화에 보면 하느님은 이 땅이 무언가 허전하고 있을 것이 없는 듯이 느껴져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복구신화가 아닌 성경에는 흙으로 그의 형체대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사람으로 되었다 한다. 이때 생기라는 것은 생명을 창출해 낸 신비의 에너지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복구의 신화는 이것과는 다르게 몰푸레나무(Aske, 영어로 옛시 Ash)로 남자 아담을 만들고 느릅나무(Embla, 영어로 엘름 Elm)로 여자 이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나무는 이미 생명있는 것이기에 흙보다는 나무로 사람을 만들기가 더 수월했을 것이다. 때로 느릅나무도 씩씩한 남성으로 비유된 보기가 없는 것은 아

◀ 아름다운 수벽. 센브룬궁. 비엔나.
1980. 10. 9



니다.

몰푸레나무와 들메나무는 서로 비슷한 나무로 우주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골격의 수종일 것이라 믿어 우주목 또는 세계목으로 말한다. 이것은 옛시츄리(Ash tree)가 씩씩하고 크고 강인하고 위엄을 갖춘 데 느낌을 받아 영생(永生)의 나무로 추대했을 것이다. 반면 엘름츄리(Elm tree), 즉 느릅나무는 오래 살고 크게 되는 나무이지만 어딘가 여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아담으로 되고 이브로 되었다는 신화는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데 넉넉하다.

언젠가 석학들을 모신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좌중에 있었던 한 선배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는 당치않은 말이라 하면서 인간의 원천은 바다 속에 살고 있던 인어(人魚)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변해서 인류로 되었다며 신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그분은 어류학자였던 것이다. 나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류의 시작이 몰푸레나무와 느릅나무에서 비롯된 것이면 좋겠다는 바람 비슷한 것이 있다.

흠이던 나무이던 인어이던 이 우주의 만물을 누가 어떻게 만들 어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답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인간

◀ 아름다운 수벽(느릅, 피나무 등).
센부르궁. 비엔나. 1980. 10. 9



◀참느릅나무. 충북, 옥천, 금강유원지.
1984. 10. 5

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과 그리고 시간의 영원성은 인류의 사유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저 우주라는 것은 만물이 잠시 머물렀다 사라져가는 나그네 집이요, 시간이란 것은 흘러가는 영원의 나그네라」하는 이태백의 글은 우주의 무한성을 말하고 있다.

물푸레나무와 느릅나무가 한없는 생명을 누리는 신화적인 나무라면 우리는 영구 또는 영겁(永劫)이라는 숨막히고 졸도할 만한 내용을 찾아가볼 필요가 있을 것을 느껴본다.

가친이 생존해 계실 때 어린 나에게 광음(光陰)은 백대(百代)의 과객(過客)이라는 것을 이해(?)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 해주셨다. 이 우주가 끝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된다고 했다. 즉 한 번의 길이가 10리(4km)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의 굳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하늘의 선녀가 3000년마다 한번씩 내려와 그의 명주소매만을 슬쩍 한 번 대었다가 다시 곧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와같이 하여도 그 바위는 어느 때인가 마모되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돌 3000개가 마모되어 없어지는 날에는 이 우주의 생명도 끝이 나고 그러한 시간이 곧 영겁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셨다.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구가 만들어져 50억년 쯤 되었다고 하지만 50억년으로서는 그 돌 한 개의 극히 일부만이 마모되었을 뿐이 아니겠는가. 천사의 명주소매는 공기와 같은 것인데 그 돌을 닳게 하는 데에는 거의 힘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우주의 시간은 무한하다는 것을 할 수 없이 이와같이 말해보는 것이다. 그 안에 우리는 찰라를 살고 있다. 여기에 흥미 있는 것은 3000년에 돌 3000개라

는 3이란 숫자를 좋아하는 동양인의 아니 우리 민족의 성품이 엿보인다.

어떤 신문에 실렸던 내용인데 「우주만물, 생명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창조주」라는 제하에 다음이 있었다.

‘사람들은 우주만물과 생명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왔다. 세상 모든 존재들을 존재하게 한 그분을 우리는 절대자인 신(神)이라 말하고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즉 하느님은 우주만물과 생명을 있게 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창조주라고 부른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은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밤과 낮), 둘째 날에는 창공 위 아래의 물을, 셋째 날에는 물, 바다, 풀과 나무를, 넷째 날에는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순서를 쫓는다면 느릅나무는 셋째 날에 생겨났을 것이고 창세기에 보면 각종 생물의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담으로 되어 있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느님을 도와준 보조적인 존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이전에 나무가 만들어졌다는 타당한 순서를 생각한다면 느릅나무가 아담의 처 이브로 되었다는 복구신화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더 할 형편도 못된다.

다만 느릅나무 등을 창조하신 그 존재를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존재가 워낙 전능(全能)하기 때문에 신으로 말한다든 것이다.

2 느릅나무류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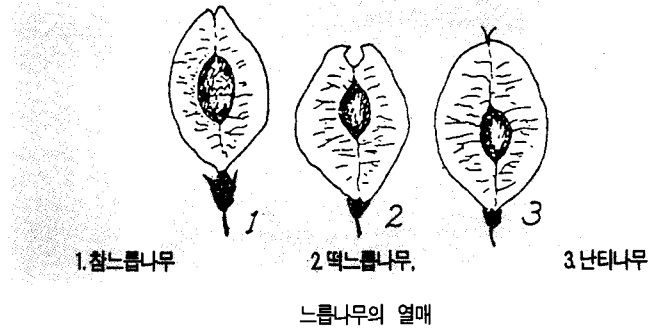
느릅나무속에는 세계적으로 약 20~30에 가까운 종이 있고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분포가 국한되어 있다. 사람에 따라 추정하는 종의 수에 차이가 다소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중요수종에는 참느릅나무, 떡느릅나무, 난티나무, 비술나무 등이 있다. 앞으로 구별하는 데에는 다음이 도움된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열매는 납작하고 종자(또는 實體)의 둘레에 얇은 막이 있어서 시과(翅果, 날개열매)라 한다(그림 참조).

- 앞은 단거치(單鋸齒) - 참느릅나무
- 앞은 복거치 →
 - 앞에 털이 없다 - 비술나무
 - 앞 뒤에 털이 있다 →
 - 앞 끝이 갈라진다 - 난티나무
 - 갈라지지 않는다 - 떡느릅나무

*떡느릅나무의 열매에는 털이 없으나 털이 있으면 당느릅으로 말하고 떡느릅나무는 모종(母種)인 당느릅나무의 변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때 실체(열매)는 열매의 가운데 놓여있지만 떡느릅나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쪽에 위치해



있다. 떡느릅나무의 열매의 끝쪽은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그림 참조).

참느릅나무는 꽃이 가을에 피고 얼마 안가서 그 해 늦가을에 열매가 익지만 떡느릅, 난티, 그리고 비술나무의 경우는 봄에 꽃이 피고 초여름에 열매가 성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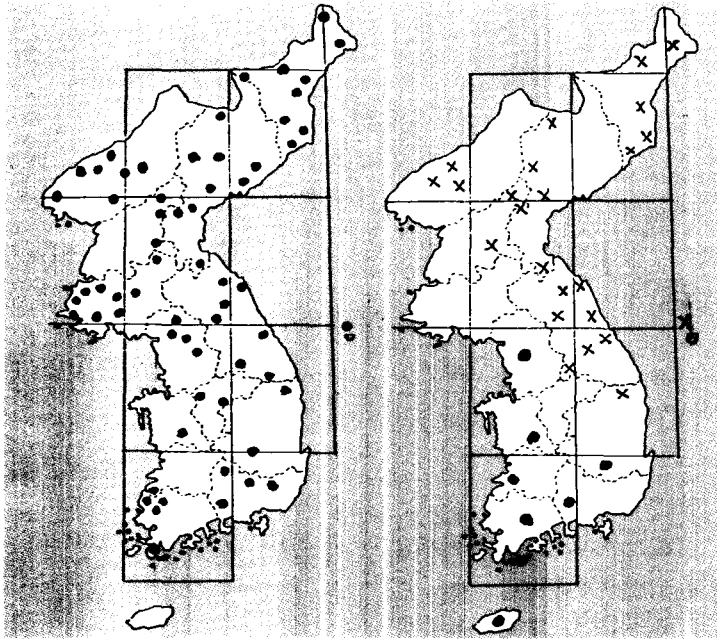
떡느릅나무의 변종에 흑느릅나무가 있는데 가지에 콜크질의 돌기가 발달해서 기이하게 보이고 떡느릅처럼 전국적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흔한 것은 못된다. 비술나무도 북방수종으로 말할 수 있다. 비술나무의 영명은 시베리아 느릅나무(siberian elm)인데 이름이 뜻하듯이 한지성(寒地性)으로 학명이 울무스 푸밀라(Ulmus pumila)로서 중국 신강(新疆), 감숙(甘肅), 산서(山西), 산둥(山東), 만조, 시베리아 등지에 나는 광범종(廣汎種)이다. 필자는 중국 신강의 천산(天山)지구에서 많은 비술나무를 보았는데 줄기가 굵고 수고는 10m쯤에 이르렀다. 비술나무는 느릅나무류 중에서 가장 추위에 잘 견디고 여름철의

건조에 또한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중국 서쪽 신강(신장)성, 감숙성 등 건조지역에서는 귀중한 나무자원으로 되고 있다. 꽃이 모여서 피고 열매도 모여서 달린다.

3 느릅나무의 분포

느릅나무는 우리나라 온대림(낙엽활엽수림)의 대표종의 하나라고 말했으나 이곳에 보인 분포도처럼 종에 따라서 그 생육영역을 다르게 하고 있다. 즉 참느릅나무는 따뜻한 지역에 즐겨나는 나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떡느릅나무나 난티나무는 더 추운 곳에 분포해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떡느릅나무는 북해도에 많고 특히 북해도의 이름난 도시 삿포로는 떡느릅나무와 아카시아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진 것이 잘 알려지고 있다. 난티나무도 한지성의 나무로서 북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느릅나무류는 북부지방에 더 많았고 쓰임새도 더 했다고 여겨진다. 글에 중국 남쪽 사람들은 북쪽사람이 느릅나무



떡느릅나무의 분포

참느릅나무(●), 난타나무(x)의 분포

있 먹는 것을 보고 항상 웃어댄다는 것이 있다(河南人常笑河北人好食榆葉). 맛있는 느릅나무 어린잎을 중국 북쪽 사람들도 많이 먹은 모양이다.

4. 느릅나무 명칭고

느릅나무의 한자명은 榆(느릅나무 유)인데 느릅나무에 대한 한자명처럼 혼돈스러운 것은 없다. 표에 명칭대조를 보인다.

이것은 정태현 박사의 저서에서 뽑은 것이다.

한국명	일본명	한자명
참느릅나무	チョウセンアキニレ(朝鮮秋榆)	榔榆
떡느릅나무	ハルニレ(春榆)	栉榆, 家榆, 白榆, 花榆, 鑽全榆, 碧榆
난타나무	オヒヨウニレ, アツニ	姑榆, 山榆
비슬나무	ノニレ(野榆)	野榆, 榆木
왕느릅나무	チヨウセンニレ(朝鮮冬榆)	黃榆, 燕黃

느릅나무의 한자명에는 흑유(黑榆), 백유(白榆), 황유(黃榆), 청유(靑榆), 적유(赤榆) 등 색깔에 주목한 것이 많다. 미국에 있어서도 미국에 많은 미국느릅나무를 화이트엘름(white elm)으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수피의 색깔이 담회색인데 있다.

옛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

榆 榆白粉 從木俞聲
또, 榆按 榆皮色赤 其白者爲粉

也 莢可食 赤可爲醬 赤榆 先箸莢 後生葉 白榆 先生葉 後箸莢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느릅나무 : 느릅나무의 흰 것을 분(粉)으로 말한다. 나무목 옆에 유(兪)가 있음으로 유(榆)로 발음한다. 또 느릅나무를 생각하여 보면 건대 느릅나무의 껍질은 붉은데 수피가 흰 것을 분(粉)으로 말한다. 열매(莢)는 먹을 수 있고 또 장으로 담을 수도 있다. 적유(赤榆)는 먼저 열매를 달고 뒤에 잎이 나타난다(떡느릅나무 등에 해당한다. 필자).

그런데 느릅나무를 일본말로 「니레(ニレ)」라 하는데 니레는 우리말 「느릅」이 변해서 얻어진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풀이가 성립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본명 「니레」는 「누레(滑, 粘滑을 누레로 읽는다)」에서 온 것으로 보고 이 「누레」가 한글명 「느릅(Nulim)」에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미끌미끌(滑)하다는 뜻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느릅나무의 내피를 유피(榆皮) 또는 유백피(榆白皮)로 말하고 한방에 있어서 완화제(緩和劑)로 쓰고 있다. 위장의 운동을 순조롭게 하고 소화를 돕고 통변을 부드럽게 한다고 한다. 필자도 느릅나무 뿌리의 내피를 얻어 건조시키고 동전 크기로 자른 것을 껌 씹듯이 씹은 경험이 있다. 입 속에서 녹아 미끈미끈하게 되어 버

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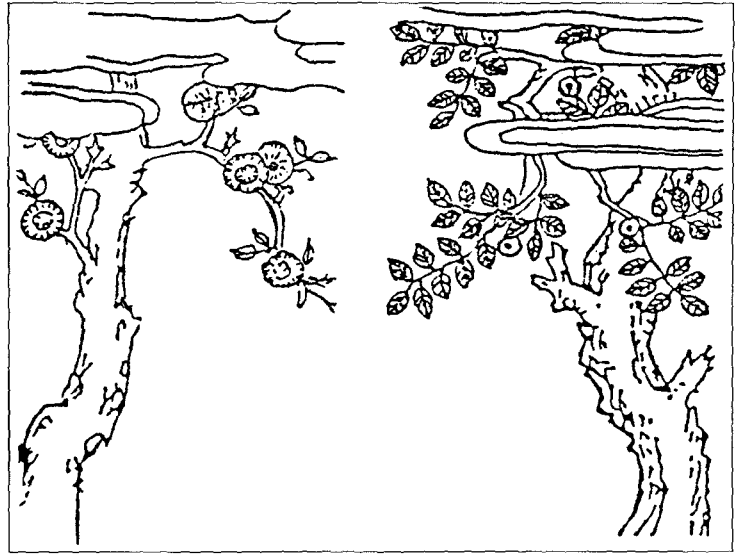
이 건조한 유피를 찢어서 가루로 만들고 쌀가루와 솔잎가루와 섞어서 찌든지 부침으로 만들어 먹는다. 때로는 이 유피의 점액이 강한 접착력을 가져서 깨어진 기와장이나 깨어진 돌을 서로 붙이는 데에도 쓴다고 했다.

어린 가지의 내피는 삼의 대신으로 쓰고 밧줄을 만드는 재료로 하기도 하고 자리를 엮는 데도 썼다고 한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닥나무 섬유로 종이를 만들 때 떡 느릅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 내피로부터 질 좋은 점액을 얻어 초지용(抄紙用)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느릅나무의 내피부터 점액을 추출해서 종이를 뜨고 이것을 유지(楡紙)로 말했다 한다. 여기에는 점질 즉 「느릅」 또는 「누루누루(미끄럽다)」란 말이 적용되었을 것이라 하며 「니래」라는 일본말 명칭으로 변해갔다고 보는 것이다.

「느릅」, 「느릅」은 영어 명칭 「엘름(elm)」, 독일어의 「울매(ulme)」에도 유사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라틴어 「울무스(ulmus)」에서 파생된 말에 「느릅」과 「니래」 또한 찍어 붙인 것 같다.

필자는 어학에 관하여서는 문외한이지만 우리말과 일본말은 같은 선조인 알타이말부터 갈라져 간 형제어(兄弟語)인 것이라 하며 그 뿌리를 알타이어로 소급해서 추적할 수 있다 한다. 우리



무이(無尾) (좌)와 느릅나무(우) 三才圖會

말이 일본말을 형성한 보기는 많다. 가령 몇 가지를 다음에 든다.

한 글	일본어
오이(瓜)	우리(瓜)
골(洞)	구라(洞)
곰(熊)	구마(熊)
논(水田)	누마(沼=水田)
꽃(花)	구사(草=花)
꼬지(串)	구시(串)
갓(帽)	가사(笠)
벌(蜂)	바찌(蜂)
섬(薪: 땔감)	시바(柴: 땔감)

이런 것을 고찰해 본다면 느릅나무라는 「느릅」이 일본명칭 「니래」로 변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일본학자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사람들은 「니래」를 한자로 仁禮(니래)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별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음을 빌려 붙인 것으로 생각한다.

5. 유새(楡塞)

이처럼 비술나무(野楡)는 중국 북부지역에 많이 나는 까닭에 예전 북방을 지키는 데에는 국경에 이 나무를 많이 심어 새(塞)로 했고 그래서 유새(楡塞)라는 말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새라 하면 북방변경의 성새(城塞)를 뜻한다. 즉 '돌을 쌓아서 성으로 하고(累石爲城), 느릅나무를 심어서 새로 한다(樹楡爲塞)'는 기록에서 유새의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적을 막는 데에는 큰 나무들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느릅나무는 중국 북쪽 국경지대에 심어져 차폐물의 기능을 한 하나의 요새의 시설이란 말을 했

▶비슬나무의 노거목. 중국, 신강성, 천산.
1995. 9. 20

는데 이것을 소재로 한 시가 있다. 청효각(聽曉角)이란 시제가 붙어 있다.

이것은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를 살아온 이익(李益)의 시로서 '북방 변새(邊塞, 요새)에서 군대에 새벽을 알리는 각적(角笛)의 소리를 듣다'라는 뜻이다.

邊霜昨夜墮關榆
吹角當城片月孤
無限塞鴻飛不度
秋風卷入小單于

변상작야타관유
취각당성편월고
무한새홍비불도
추풍권입소선우

풀이해 본다.

「변경지방에 서리가 내려 밤 사이에 요새에서 있는 느릅나무(關榆)의 잎이 졌다. 새벽을 알리는 각적소리가 성으로 퍼지고 조각달이 외롭다. 한량없이 많은 기러기 떼가 피리소리에 느껴 그져 날지 못한다. 가을바람이 소선우라는 노래곡조에 파고들어 더욱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구나.」

이 시의 시작에 느릅나무는 북방에 심어진 하나의 군사시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선우(單于)란 흉노의 도목을 높여 부른 말이고 크고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느릅나무류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비교적 높게 자라는 나무들로서 우리나라 온대지방의 수종을 대표하는 유력한 존재이다. 잎은 어긋나고 두 줄로 붙고 잎의 밑쪽(葉底)은 양쪽이 서로 같지 않다. 느릅나무는 자람이 비교적 빠르나 땅 힘이 좋아야 하고 목재의 질이 좋아서 건축재, 기구재, 악기재로 숭상되고 있다. 어린 잎은 식용으로 되고 고향의 맛을 자아내는 터복스러운 콩가루 무침의 나물로 된다. 그리고 공원수종, 가로수종 등 조경적 가치가 높아 외국에서는 이 나무를 즐겨 심고 있다. 특히 미국, 북구의 여러나라, 소련 등이 그러하다. 그 나무는 도시조건에 전다는 힘이 강하고 쉽게 옮겨 심을 수도 있고 가지를 쳐서 나무모양을 다듬어줄 수도 있다. 깨끗한 나무이나 보기에 다시 야생적이고 여름에는 좋은 그늘을 만들고 열매는 새들의 먹이로서 높이 평

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시 이 나무의 식재를 흔히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고 장차 는 더 심어질만한 나무로 생각한 다.

건강한 나무이지만 미국에서 지난날 느릅나무병이라고 해서 곰팡이 종류가 나무 줄기 속의 살아있는 조직에 기생하면서 나중 에 가서는 물길기 되는 도관의 속 을 메꾸어 그 나무를 갑자기 건조 시켜 죽이는 일이 있었다. 이 병 으로 미국느릅나무가 큰 타격을 받은 일이 있다. 이 병은 특히 미 국에 있어서 큰 유행을 보았고 다 른 나라의 느릅나무들은 그 병에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6. 느릅나무와 불

느릅나무는 옛적에 불씨를 얻는데 이용되었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관(司權, 불을 담당하는 벼슬아치) 조에 다음이 있 다.



四時變國火 春取榆柳之火 夏取
 棗杏之火 季夏取桑柘之火 秋取梓
 櫨之火 冬取槐檀之火

「계절이 변하는데 따라 나라의 불을 다르게 하는데 봄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마찰시켜서 불을 얻고 여름에는 대추나무와 살구나무로서 늦여름에는 뽕나무와 구지뽕나무로서 또 가을에는 떡갈나무와 졸참나무를 겨울에는 회화나무와 박달나무를 비벼서 불을 취한다.」

이것으로 보면 느릅나무는 불을 얻는데 이용된 모양이다.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민족도 느릅나무의 목재를 마찰해서 불을 얻었다고 한다. 아이누인들은 느릅나무를 「지끼사니」로 말하는데 그 뜻은 「우리가 불을 비벼낸다」는 것이라 한다. 떡느릅나무에 번개가 쳐서 나무에 불이 붙게 되어 불을 얻었다는 다음과 같은 신화가 있다.

「떡느릅나무의 여신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이었고 모든 신들이 선망하는 대상이었다. 이처럼 하늘의 신들도 아름다운 여신에는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다. 그 중 벼락의 신은 남달리 이 여신을 흠모하였다. 그는 어느 날 구름 위에 몸을 나타내고 여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발이 미끄러져 막바로 떡느릅나무 여신의 몸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로서 여신은 임신하게 되어 남자아이를 분만하게 된다. 이 남아가 곧 아이누족의 문화신(文化神) 「아이누락크루」이다. 그런데 떡느릅나무의 여신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의 조화신(造化神)에게 부탁해서 키우게 되었다. 그 뒤 아이누락크루는 자라서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악마와 나쁜 신들과 싸워서 땅 위에 평화를 찾은 뒤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

이 신화는 뇌신(雷神, 우리의

◀ 거대한 느릅나무. 만주 길림시.

신)의 씨를 담았다는데 인연을 붙여 떡느릅나무가 발화재(發火材)로서 알맞다는 성상을 암시한다. 동시에 불은 만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이고 인류행복의 바탕이란 것을 뜻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신화는 앞에 이미 소개한 복구의 신화와 통하는 점이 있다. 느릅나무가 변해서 된 이브는 아담과 함께 하여 잉태하므로서 인류를 번성시키는 시초가 되었는데 이곳 아이누족의 신화에 있어서도 느릅나무가 잉태해서 인류를 번성시켰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 같지는 않다. 또 중국 주례(周禮)의 불을 얻는 행사가 어찌면 이곳 아이누족의 그 습속에 그다지도 닮아 있는가. 신기한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느릅나무로 불을 일으키는 습속은 동서양을 통해서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 아마 느릅나무 목재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불을 잘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에 있어서 가축의 역병에 무우린(murrain)이란 것이 있다. 느릅나무의 잎이 때를 어겨서 떨어지게 되면 무우린 병이 유행하게 된다는 속설이 있었다. 이 병을 쫓아 없앤다는 뜻에서 나무를 마찰해서 불을 일으켰다. 이 때 쓰여진 나무가 느릅나무였고 그 불을 「니드화이어(needfire)」라 말했다. 이것은 추우통민족의 습속이었다.

늦봄에 비오듯이 휘날리는 느릅나무의 열매는 특별한 정취를 자아낸 모양으로 시인들은 그것을 시의 소재로 많이 삼았다. 느릅나무 열매를 유전(楡錢)으로도 말하는데 『바람불어 유전이 비오듯이 쏟아진다(風吹楡錢落如雨)』라는 시의 대목이 있다.

7. 시경의 느릅나무

(1) 동쪽문의 느릅나무

시경 진풍(陳風)에 이 노래(東門之粉)가 있다. 이 노래는 남자와 여자가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의 유희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도시형의 청년과 시골형의 아가씨들이 합류해서 종일토록 춤을 추고 밤이 오자 뜻을 모아 헤어져 간다. 끝에 가서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고 나선다. 이 노래에 느릅나무(粉)와 상수리나무(榲)가 남성적인 것으로 삼(麻)과 아욱(苳)과 산초(山椒)는 여성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산초열매는 다산(多産)과 생식의 심

벌로 쓰여지고 그리고 서로 식물을 보낸다는 것은 정을 통한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하다.

노래의 내용을 필자가 문헌을 참고로 해서 옮겨본다.

동문의 느릅나무
언덕 위의 상수리나무
그 아래에 청년들이
등실등실 춤을 춘다.
즐겁고 좋은 날
남쪽 들판부터
삼베질에 손을 놓은 아가씨들
모여든다.

좋은 날 저물어가자
손에 손을 잡고
아웁같이 이쁜 여자야
너에게 한 줌의 산초를 달라

동문 약간 낮은 곳에는 느릅나무를, 언덕 위 높은 곳에는 상수리나무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무의 자라는 곳을 생태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2) 산에는 느릅나무

당풍(唐風)에 산유추(山有樞)가 있다. 이 노래는 쾌락한 삶을 권유하는 노래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즉 이 노래는 향락주의를 구가하는 것이다. 후세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기틀로 삼는 초기의 노래라 한다. 이 노래에는 시무나무(樞, 刺楡), 느릅나무(楡), 말오줌대(糲), 감탕나무(榑), 옷나무, 밤나무 등 6가지 수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 노래는 좀 길어서 첫째 스타anza(stanza)만 옮겨본다.

山有樞	산유추
濕有楡	습유유
子有衣裳	자유의상
弗曳弗婁	불예불루
子有車馬	자유거마
弗馳弗驅	불치불구
宛其死矣	완기사의
他人是楡	타인시유

산에는 시무나무
들판에는 느릅나무
너에게는 의상이 있으나
입지를 얹고
말과 수레가 있어도
타지를 얹다가
하루아침 죽어지면
다른 사람이 즐기게 된다.



◀연리를 보이는 떡느릅나무. 1980. 5



◀ 느릅나무의 노거
목. 월정사 입
구. 1995. 2. 26

〈참고〉衣裳, 위에 입는 것은 衣, 아래 입는 것이 裳. 弗은 不과 같다. 완(宛)은 어찌지도 못하고 어 물어물하는 사이를 뜻한다. 是榆는 이것을 즐기다라는 뜻.

가진 것이 있으면 즐기라는 것인데 술좌석쯤에서 부르는 노래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노래가락에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는 등이 있다. 향락주의란 좋은 것이 못된다.

8. 느릅나무의 시

중국시로서 느릅나무를 소재로 한 것이 있다.

(1) 장순민(張舜民)의 촌거(村居)

이 시는 늦가을의 농촌풍경을 읊은 것으로 그는 협서성(陝西省)의 사람이었다.

水繞陂田竹繞籬
榆錢落盡槿花稀
夕陽牛背無人臥
帶得寒鴉兩兩歸

수요피전죽요리
유전낙진근화희
석양우배무인와
대득한아양양귀

「물은 다락논을 돌고 대나무는 울타리를 둘러다. 느릅나무 열매는 모조리 떨어지고 무궁화꽃 드물다. 석양에 소 등에는 탄 사람

없고 까마귀를 앉혀서 함께 돌아오고 있구나.」

여기에 유전(榆錢)이 나오고 있으며 무궁화가 등장하고 있는데는 우리의 관심이 간다. 무궁화는 늦봄 느릅나무의 열매가 떨어진 뒤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하므로 이 시는 생물학적 추이의 순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아는 까마귀의 한 종류를 뜻하고 자조(慈鳥)라고도 말한다. 양양(兩兩)이란 소와 까마귀가 함께해서라는 뜻이다. 피전(陂田)이란 비탈진 곳에 만들어진 논(또는 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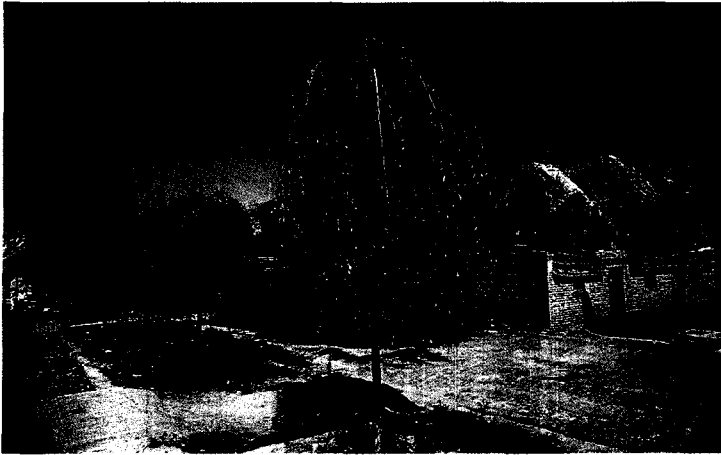
(2) 진여의(陳興義)의 양읍도중(襄邑道中)

12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시는 「양읍을 지나는 여행길에서」라는 뜻의 시제를 달고 있다. 진여의는 낙양사람이었다.

飛花兩岸照船紅
百里榆堤半日風
臥看滿天雲不動
不知雲與我俱東

비화양안조선홍
백리유제반일풍
와간만천운부동
부지운여아구동

「양 언덕이 피는 꽃 나그네 배를 붉게 하고 백리제방에 줄로 서 있는 느릅나무를 만나절로 지내



◀ 능수비술나무. 중국 신강성. 1995. 9. 20

다. 누워서 하늘 가득한 구름을 본다. 꿈쩍않는 구름인줄 여겼더니 나와 함께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양읍은 하남성(河南省)에 있다 하는데 어떤 종류의 느릅나무인지는 몰라도 느릅나무의 일종이 백리길로 서 있었다는 것은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그는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가 시를 지었다.

(3) 진자룡(陳子龍)의 소차행(小車行)

진자룡은 17세기 초반을 산 사람으로 지금의 상해(上海) 사람이다. 그는 청(淸)나라 병사와 전투를 하다가 싸움에 져서 몸을 물에 던져 자살한 바 있다. 이 시는 기근을 맞아 굶어가면서 도망가는 궁한 백성의 고뇌를 묘사한 것이다.

小車斑斑黃塵晚
夫爲推 婦爲挽

出門何所之
青青者榆療吾飢
順得樂土共哺糜
風吹黃蒿 望見墻宇
中有主人當飼汝
叩門無人家無釜
躑躅空巷淚如雨

소차반반황진만
부위추 부위만
출문하소지
청청자유료오기
순득낙토공포미
풍취황호 망견장우
중유주인당사여
고문무인가무부
척촉공항루여우

『일륜차(一輪車, 小車), 달달(斑斑) 먼지 이는 저녁에 남편은 밀고 마누라는 당기면서 집을 나서 어디로 가는가. 푸르게 우거진 느릅나무, 저것 먹고 허기는 면하겠구나. 어딘가 자리를 잡아 느릅나무의 죽이라도 썬어먹자. 바람

은 말라버린 쭉밭을 불어지나고 저 멀리 흙담과 지붕이 보인다. 그 집에 주인 있어 틀림없이 너를 먹여줄 것이다. 문을 두드렸으나 사람 없고 집 안에는 술도 없다. 사람 없는 길거리에서 머뭇거리는데(躑躅) 척촉) 눈물이 비오듯 한다.』

이것은 절망적인 사회, 처참한 역사 그리고 슬픈 인간상을 묘사한 것으로 비극을 초월한 느낌이 다. 느릅나무의 껍질과 잎은 기근 시기에 배고픔을 달래주는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참함은 인류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느릅나무가 있다면 느릅나무는 슬픈 나무가 아닐 수 없다. 느릅나무가 스스로는 죽어가면서 사람을 살리자고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비참한 인간이 느릅나무를 죽이는 것이다.

(4) 유우석(劉禹錫)의 영로(詠老)에 화답하는 시

유우석은 8~9세기에 걸쳐 산 사람으로 민간가요를 고쳐 만든 죽지사(竹枝詞)가 유명하다. 이 시는 그가 교유관계에 있었던 백락천(白樂天)의 시 영로(淸음을 읊노라)에 화답한 것이다. 늙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좋은 지를 암시해 주는 시

이다.

人誰不願老 인수불원로
 老去有誰憐 노거유수린
 身瘦帶頻減 신수대빈감
 髮稀冠自偏 발희관자편
 廢書緣惜眼 폐서연석안
 多爻爲隨年 다자위수년
 經事還諳事 경사환암사
 閱人如閱川 열인여열천
 細思皆幸矣 세사개행의
 下比便悠然 하비편유연
 莫道桑榆晚 막도상유만
 爲霞尙滿天 위하상만천

〈참고〉 자(爻) : 양지쪽에서 몸을 덥게 하는 것, 경사(經事) : 경험을 쌓는 것, 책을 믿었다가 스스로 잘못을 범하고 경험을 함으로써 잘못을 알게 된다는 시의 대목이 있는데 경험의 중요성을 암시, 하비(下比) : 아래와 견주어 보는 것, 이 반대가 상비(上比) : 자기만 못한 자와 비교하면 마음 편하다는 것, 유연(悠然) :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모양, 상유(桑榆) : 해가 질 무렵 햇볕이 뽕나무와 느릅나무 끝쪽에 머문다는 뜻으로 서쪽 또는 늙음 또는 늙은 때에 비유된다.

위의 시를 풀이해 본다.

누군들 늙음을 원하리
 늙은이를 누가 그리워하리오



몸은 야위고 허리는 가늘어져
 머리는 빠지고 갖은 비뚤어지
 고

책을 버리는 것은
 눈을 아끼기 위해서다.

양지쪽을 찾는 것도 나이 탓이
 고

경험으로 또한 일을 알았으며
 시냇물 보듯이 세상을 본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행복하였지
 아래를 보면 마음이 편하다.
 늙음을 말하지 말라
 아직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가득하다.

이 시의 내용에 불합리한 곳이 전연 없다. 다만 늙은이는 사람들로 부터 소원하게 되고 그를 찾는 이가 줄어들고 끝내는 거의 없어 지다시피 한다는 시의 대목에는 인간 삶의 거의 필연적인 흐름같은 것을 느낀다. 모든 사람은 늙음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젊을 때에는 그 달음박질에 큰 실감이 나

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때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철학같은 것이 만들어진지도 모른다. 뽕나무와 느릅나무 상유(桑榆)는 그 뜻이 그다지 반가운 것이 될 수 없다.

9. 옛책의 느릅나무

(1) 아언각비

아언각비에는 각종 문헌을 통한 느릅나무를 고찰하고 있다.

첫째 자유(刺榆)는 가지에 가시가 있고 이아(爾雅)에는 이것을 추(樞, 느릅나무 추)라 했고 시경에 산유추(山有樞)라 한 것은 바로 시무나무를 뜻한다고 했다. 또 시무나무는 구지뽕나무(柘)에 닮아 가시가 있다고 했다. 자(柘)를 더러 산뽕나무로 풀이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산뽕나무에는 가시가 없기 때문이다(이점 필자의 견해임).

둘째로 고유(姑榆)를 말하고 있다. 이아에 고(姑)는 열매가 없

다했다. 또 어느 문헌에는 고유에는 열매가 있다고도 했다. 분간이 어렵다.

셋째는 백유(白榆)인데 이야에서 이것을 백분(白粉)으로 말했고 시경의 동문의 느릅나무(東門之粉)는 이것이라 했다. 열매가 앞에 이어나고 껍질이 희다했다. 이러한 것은 떡느릅나무로 생각된다(필자).

또 대유(大榆)는 봄에 열매가 생기고 낭유(榔榆)는 가을에 생긴다 했으나 앞의 것은 떡느릅나무 종류이고 뒤의 것은 참느릅나무 같이 믿어진다(필자).

정다산 선생의 다음 서술에는 조심이 가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백유(白榆)는 방언으로 「늘음」 또는 「느릅나무」라 하나 이것은 산에 저절로 나는 야생적인 것이고 자유(刺榆, 앞에 시무나무로 말한 것이지만)는 방언으로 「늦희」 또는 「느티나무」로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집에서 심는 나무이고 이 나무를 사람들은 귀목(龜木)이라고도 말한다. 라고 했다.

여기에 필자의 견해를 붙이면 자유(刺榆)를 현재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무나무로 보는데 이것을 느티나무로 보고 일명 귀목으로 본다는 과거 우리의 이해는 수종 분별을 당황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다. 집이나 마을에서 흔히 심는 나무라면 느티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느티나무를 귀목으로도 말한 우리 선조들의 인

식을 고려한다면 귀목(槐木, 회화나무 또는 느티나무를 뜻했다)과 귀목(龜木)의 발음이 극히 유사해서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적된다. 즉 귀목과 귀목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느티나무를 자유(가시있는 느릅나무)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느티나무가 거대한 수형으로 되고 과거 민속신앙의 대상으로 된 것이 흔하고 장수하는 나무이고 보면 동물로서는 역시 오래 살고 상서로운 신비성을 지닌 거북에 견줄만 하고 그래서 느티나무를 귀목으로 말하는데 인색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 책에 참느릅나무는 한자로 낭유(榔榆)라 하고 이 나무는 습한 땅을 좋아하며 큰 나무로 자란다. 잎이 가슬가슬한 것(사가 있는 것)을 자유(刺榆)로 말하고, 사가 없는 것을 면유(綿榆)라고 하며 모두 참느릅나무(榔榆)에 속하는데 여름에 꽃이 피고 익으면 곧 떨어진다. 이러한 기록은 자유(刺榆)가 꼭 가시(刺)가 있어서 얻은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시무나무가 아니더라도 자유로 말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느릅나무를 이용해서 국, 술, 장, 국수, 가루 등을 만들고 또 향, 풀, 접착용 아교 풀을 만든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릅나무(榆)가 어떠한 나무인지 모르고 또 시험해 보지도 않았기에

이용후생을 바랄 수가 없었다고 침기하고 있다. 느릅나무류는 쓸모 높은 나무들이다. 이처럼 아연 각비에 나오는 느릅나무의 설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준다. 잘 저작하면서 내용을 읽을 필요가 있다.

(2) 본초강목

본초강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느릅나무(榆)에는 수십종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협유(莢榆)와 백유(白榆)는 모두 크게 자라는 대유(大榆)이다. 붉은 것과 흰 것의 두 종류가 있고, 그 중 줄기색이 흰 것을 분(粉)으로 말한다. 그 나무는 높게 자라고 아직 잎이 피기 전에 가지 사이에 열매(榆莢)를 단다.

그 모양은 동전에 닮아 있으나 크기가 작다. 그 색은 희고 꼬치(串)모양으로 되어 있다. 속되게 이것을 유전(榆錢)으로 말한다. 뒤에 가서 잎이 나오는데 산수유의 잎에 닮아 있고 잎 끝이 뾰족하고 윤기가 있다. 어린 잎은 삶아서 물에 씻어 먹으면 맛이 좋다. 자유(刺榆)라 하는 것은 가지에 가시가 있어 구지뿔나무(柘)의 가시 비슷하고 잎은 느릅나무에 닮아 있다. 모든 느릅나무는 잎과 가지로 땅을 덮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무 아래에는 고곡을 재배할 수 없다. 근래 사람들은 느릅나무의 속껍질을 얻어 물에 담구고 찢어서 풀처럼 만들어 그

것으로 깨어진 기와장을 붙이는데 쓴다. 점착력이 강하다. 때로는 돌을 서로 접착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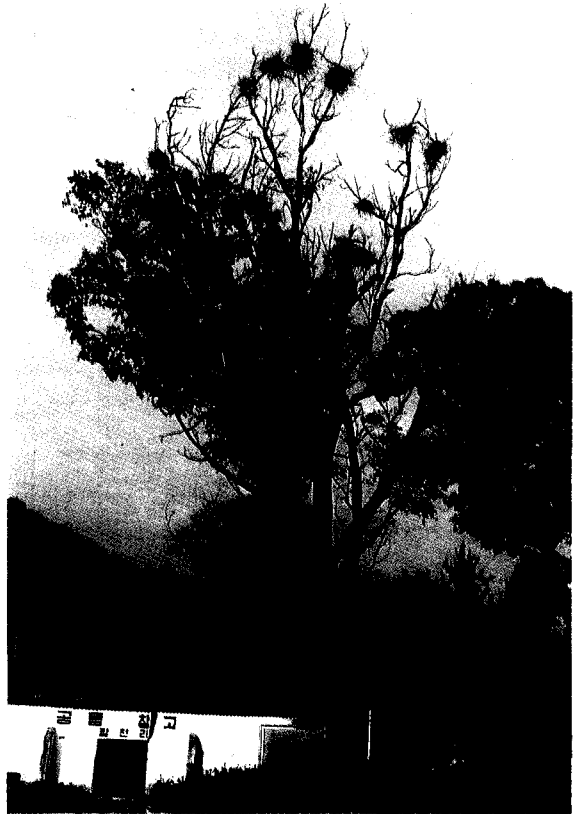
느릅나무 껍질(榆白皮)은 대소변을 통하게 하고 좋지 못한 기(邪氣)를 제거하고 종기를 다스린다. 또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나게한다. 목재는 가시나무처럼 단단하다고 했다. 또 본초강목에는 무이(蕪莢)를 들고 이것은 느릅나무 종류로서 중국 및 고려(한반도)의 산중에 난다고 했다. 열매도 느릅나무의 그것에 닮아 있으나 냄새가 고약하고 지독해서 물건 사이에 이것을 두면 벌레가 일지 못한다고 했다. 열매는 장내의 기생충을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했는데 이 때 느릅나무과에 속한다는 무이가 무엇인지 말하기가 어렵다.

10. 런던의 느릅나무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능적이며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많이 심어지고 있는 가로수 수종에는 느릅나무, 플라타너스, 피나무 그리고 마로니에이다. 이것을 세계 4대 가로수종으로 말한 학자가 있다. 이 중 마로니에는 해양성 기후 국가에 적합한 나무이고 피나무 종류는 다소 기후가 한랭한 지대에 더 알맞다. 느릅나무는 이처럼 세계적인 나무이다.

느릅나무는 영국의 정원을 장식하는 나무이다. 참나무, 너도밤

▶외가리 집으로 된 느릅나무. 삼척, 하장면, 갈전리. 1989. 5. 28



나무, 물푸레나무처럼 모여서 우거진 숲을 만드는 일은 드물고 외따로 홀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 가지와 잎이 뻑뻑히 나서 높이 40~45m에 이르는 나무도 드물지 않다. 영국에서는 특히 남쪽지방에 많다. 자람이 빠르고 처음 10년간에는 8~9m까지 자란다. 가을의 단풍이 특히 아름답다.

유럽에는 서남부지방에 나는 유럽느릅나무와 북위 67도까지 분포하는 서양 떡느릅나무가 있다. 모두 거목으로 되고 오랜 수명을 누린다. 목재는 물 속에서도 잘 썩지 않으므로 주철(鑄鐵)이 없었던 시대에는 송수관(送水管), 조

선재 등으로 넓게 사용했다. 지금도 런던의 땅 속에서 오래된 느릅나무의 수도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교량, 워터루교(Waterloo Bridge)의 다리발(교각)은 120년 동안 탈없이 사용되었고 올드런던교(Old London Bridge)를 해체할 때에도 느릅나무의 교각은 600년을 지났는데도 조금의 손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니스에 있어서 운하에 놓여진 리알토교(Rialto Bridge)는 느릅나무로 된 교각 100개로 지탱되고 있었다 한다. 엄청난 느릅나무의 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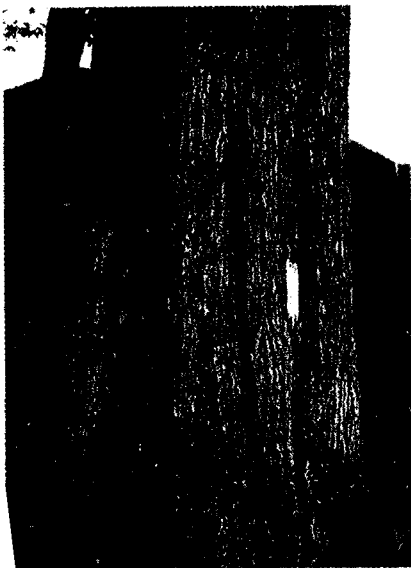
다.

그 뿐만 아니라 느릅나무의 목재는 손수레, 의자의 좌판, 가구재, 세공재, 농기구재, 관재 등으로 사용되었다. 고대 농업에 있어서는 느릅나무로 된 가래(밭을 가는 공구)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느릅나무가 어릴 때 알맞게 휘어서 자라게 해서 가래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유럽 특히 영국의 느릅나무 문화를 짐작하게 한다.

느릅나무는 도시의 오염된 공기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가로수, 공원수, 울타리용으로 심는 일이 많다.

11. 큰 느릅나무

우리나라에서 느릅나무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한 그루 있다.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갈전



▲느릅나무의 줄기. 삼척, 하장면, 갈전리. 1989. 5. 28

리에 서 있는 느릅나무가 외가리들의 배설물로 해를 받아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적이 있다. 느릅나무의 외가리집이 15개나 있었고 몇몇 가지는 배설물로서 이미 고사상태에 있었으며 몇 줄기는 아직 살아 있었다. 외가리들이 살지 않으면 이 나무는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보았으나 외가리를 쫓아버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찾아오는 외가리를 기쁜 손님으로 맞이하는 마음씨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느릅나무를 동리사람들은 서낭당나무로 지정해서 해마다 정월 보름께가 되면 주민들은 제사를 올리고 있다. 그 느릅나무의 높이는 약 32m, 가슴높이 줄기둘레는 3m에 이르는 노거수였고 나무의 나이는 400년 쯤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활엽수의 물의 통로는 나무줄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직선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이 나무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나무 껍질이 살아있는 줄기쪽의 나무가지는 살아있지만 껍질이 죽은 쪽에 있어서는 나무가지도 모조리 죽어 있었다. 침엽수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이 흐르는 조직이 가도관이기 때문에 물길은 줄기를 감고 돌아 올라간다. 그래서 죽은 껍질의 부분의 가지가 꼭 죽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은 없다. 하장면 느릅나무 옆에는 당집이 있어서 이 나무가 민속



▲느릅나무 당집. 삼척, 하장면, 갈전리. 1989. 5. 28

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록에는 경기도 부천군 부내면 부평리에는 큰 떡느릅나무가 있었고 수고 20m, 줄기둘레 10.5m, 수령 1000년으로 추정되는 동양 제일의 거목이었다 한다. 일본의 가장 큰 떡느릅나무는 줄기둘레가 8m로서 부천의 것만 못하다. 부천의 느릅나무가 지금 남아있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나무 그리고 기적같은 나무일 것이다.